



명단 정말 있었다

본지, MB선거캠프 불교계 고문 추대 명단 입수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에 조계종 지도부를 포함한 스님 380명이 상임고문 등으로 참여했다”는 의혹이 명단 공개로 새 국면을 맞았다. 이와 함께 명단의 진위 여부를 두고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3월 22일 본지는 한나라당 전 당직자를 통해 이메일로 명단을 입수했다. 명단은 엑셀(excel) 파일로 취합용과 보고용으로 시트가 나뉘어져 있다. 명단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선거캠프인 '747불교지원단(단장 조문환)'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명단에는 원로의원, 본사주지, 중앙총회의원, 총무원 집행부를 포함한 조계종 스님 152명을 비롯해 태고종(30명) 천태종(11명) 진각종(13명) 관음종(8명) 총지종(7명) 중정협(74명) 등 다수의 종단 관계자가 포함돼 있다.

명단대로라면 김영국 위원의 “380명 가운데 현재 조계종 집행부에 있는 스님도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었던 명단에는 제33대 집행부 스님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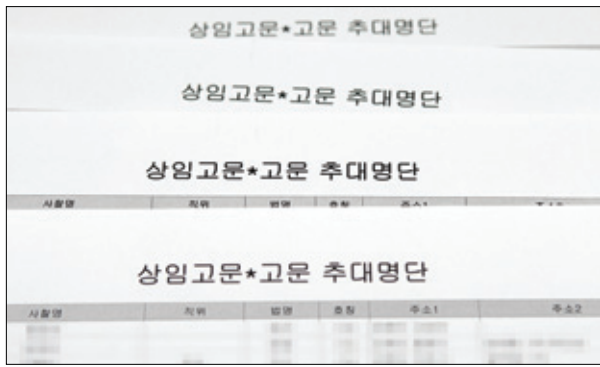
본지는 민족문화수호운동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조계종 집행부가 포함된 명단 공개 시 파장 등을 고려해 실명공개에 앞서 명단의 작성 경위, 진위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 중이다.

확인 결과, 명단 속의 스님들 대부분은 선거캠프 고문직을 수락했는지 알지도 못할 뿐더러 언급 자체가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민족문화수호결의대회 흡집내기 등 정치적 음해설을 주장하는 스님도 있었다. 말사주지인 한 스님은 “대선 때 유선 상으로 들은 기억은 있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는데 왜 명단에 내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명단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추천인도 마찬가지로 명단에 조계종 스님을 직접 추천한 것으로 기록된 한 불교계 인사는 “언급하고

싶지 않고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일축했다.

리스트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던 김영국 운영위원은 리스트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다는 입장이다. 김 운영위원은 “리스트라는 게 나오면 과거 다른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들 발뺌하고 그러다가 세월 지나면 진짜로 밝혀지고



하지 않는가?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은 날조라고 하지만 추천자의 실명까지 있는 명단이다. 분명한 것은 그 사람들이 직접 명단의 스님들을 만났다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조계종150명·태고종 30명 등 실명 확인 명단 진위·공개 여부 두고 의견 엇갈려

그러면서도 김 운영위원은 “고문으로 활동한 스님들이 정부로부터 특혜나 혜택을 받은 자료는 갖고 있지 않다. 조계종이 (정부로부터) 무엇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 없다”며 “예산 지원 여부 등을 파악해보면 보다 정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의 핵심관계자는 명단이 민족문화수호결의대회와 조계종을 흡집 내기 위해 자의적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으며 정치적 음해 가능성과 명단의 진위를 의심했다.

이 관계자는 “추천인들이 스님들을 직접 찾았다고는 하지만 ‘열심히 해라’ 하며 덕담한 것이 ‘OK’ 싸인으로 오해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명단이 공개되자 교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누구의 손에 의

해 작성됐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위 논란은 거세지고만 있다.

명단에 기록된 한 스님은 제32대 집행부의 요직을 지내며 민주당 측과 친분이 두터웠다. 또 다른 스님도 종단에서는 노무현 대통령령으로 통하던 스님이다. 때문에 다른 스님도 아닌 이 두 스님이 한나라당 측 MB선거운동에 참여했다는 명단은 누군가에 의해 자의적으로 작성됐을 것이라는 추측이 많다.

하지만 명단의 진위 여부를 떠나 이번 기회를 진정한 자정과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한다는 것이 교계의 중론이다.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의(장 만초)는 24일 ‘종단 지도부는 MB 선거

캠프 의혹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중결사는 “출가자의 선거캠프 참여는 정치적 행위로서 ‘정교분리’를 규정된 헌법적 가치를 훼손

한 일이며, 사회의 정신적 지도자·봉사자·수행자로서 언행에 대중의 사표가 될 것을 요구받는 승려의 위예도 어긋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도들과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이를 결사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라도 지난날에 대한 참회와 회개하라”며 “승가의 거룩한 전통인 자제에 따라 참여의혹을 받고 있는 스님들과 종단 지도부는 자신의 입장을 진실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회중 서울대 교수는 “명단은 공개돼야 하며, 실상이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명단 공개가 불교에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의명을 요구한 한 재가불자는 “종교인은 악이든 선이든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든 필요하다면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종교인”이라며 “명단을 공개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다”라고 강조했다.

조동섭 · 박기범 기자



100일을 한마음으로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이 ‘민족문화 수호 100일 정진 회향 및 자성과 쇄신 결사 입재법회’에 앞서 일본 대지진 피해 희생자를 위한 영가 축원을 올리고 있다. 조계사에서 3월 23일 열린 이날 100일 회향은 중앙총무기과 교역직 및 일반직 총무원과 조계사 및 봉은사 신도, 포교·신도단체, 불교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대거 참석했다. 100일 회향에서 자승 스님은 법문을 통해 “자성과 쇄신 결사의 제안은 한국불교와 조계종단이 사부대중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국민과 사회를 향해 의미있는 발걸음을 내딛었음을 중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축하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박기범 기자 사진 = 박재원 기자

간화선·위빠사나

고우·파욱 스님

4월 8~10일

한자리서 만난다

간화선 수행자 고우 스님(조계종 원로의원, 전 전국선원수좌회 대표)과 위빠사나 수행자 미얀마 파욱 사원 조실 파욱 스님이 만난다.

조계종 선림원(원장 토진)과 전통불교문화원(본부장 혜오)은 4월 8~10일 충남 공주 태고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간화선과 위빠사나의 만남과 소통’을 주제로 국제연찬회를 개최한다.

연찬회는 첫째날인 8일에는 파욱 법문과 위빠사나 체험, 9일에는 고우 스님 법문과 간화선 수행문답 등을 갖는다. 10일에는 고우 스님과 파욱 스님의 대담이, 12일 오전 11시에는 조계사 대웅전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대중법문이 진행된다.

국제연찬회 참가희망자는 전통불교문화원 홈페이지(www.budcc.com)에서 신청·접수하면 된다.

조동섭 기자

현대서 구현해야할 불교적 가치는?

3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위원장 자승)는 3월 3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현대사회에 구현해야 할 불교적 가치’를 주제로 5대결사 관련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중앙승가대 교수 미산 스님이 발제자로 참석한다. 토론은 조계종 기본선원장 지한 스님, 불

교중앙박물관장 흥선 스님, 박광서 서강대 교수, 박희택 불교아카데미 원장이, 사회는 박경준 동국대 교수가 맡는다.

토론회는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생중계되며, 누구나 인터넷 댓글을 통한 실시간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 (02) 2011-1810 조동섭 기자

사고

내 마음 속에서 발견한 부처님 당신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당신의 잊지 못하는 부처님오신날 이야기가 있나요? 즐거웠던 이야기, 힘들어 도망치고 싶었던 순간의 재미나거나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립니다.

주제: 부처님오신날 관련 이야기나 수행을 하면서 만난 부처님
응모자격: 누구나
응모기간: 2011년 4월 1~30일
분량·형식: A4용지 2매 내외(한글hwp, 글씨크기 12point)
접수방법: 이메일 hyunbui@gmail.com
*응모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핸드폰, 이메일) 함께 기재

응모작 중 봉축 특집호에 게재될 분에 한해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문의 (02)2004-8252

829호 CONTENTS

▶ 2 종합
통도사, 자정과 정체성 회복 위한 결집대회



▶ 5 현장속으로
초조대장경 복원 봉정식



▶ 7 동국대 제2 건학 본격화 세계 100대 대학으로



농인향당
농인향당의 침향전문점
침향갤러리
침향박물관 · 침향염주 · 침향선향
갤러리 02-738-6777 (조계사 맞은편)
본사 02-3663-6777 www.nihwa.com

신상품 LED인등·전구
천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What is Buddha Cookie!! 법法과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종지(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 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식과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규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 시킨 것이 '법과(法果)'입니다.

법과 이벤트 (Event)

'법과(法果)' 속의 짧은 법규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 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를 활용하여 시작되는 사찰 홍보·이벤트는 다른 어떤 유형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약속합니다.

법과 활용 (Use)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2,200여개의 곳이 법과쿠키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션,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미디어로서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청으로부터 검사, 통과 된 안심 먹거리입니다.



※ 500개 이상부터 주문 가능하며 원하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3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